

# 알고 보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 교양과학 시리즈 분야별 · 연령별로 다양해져

과학은 더이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갇혀 있지 않고 생활을 점검다리로 우리에게 건너온다. 어디나 거침없이 달리는 캐터필러는 뽀개벌레의 다리를 본뿔고, 벨크로테이프(일명 찍찍이)는 엉덩퀴 씨앗에서 영감을 얻었다. 과학은 생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PC 통신으로 친숙해진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인간이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과학 교양서도 생활에서부터 출발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유해 논란이 왓슨과 크릭의 DNA 연구를, 영화 속 토네이도가 '코리올리의 힘'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식이다.

### 과학전문출판사가 흐름 주도

생활예화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이해주고, 그 과학이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을 담거나 생명복제 같은 현재진행형의 성과를 즉각 반영한 책, 새로운 과학기술의 현재를 담은 책들이 널리 읽히고 있다. 이들 책은 골치 아프게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인 독자로 삼지만 일반인이 읽기

최신 과학기술이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등 21세기의 과학은 생활 구성요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밀레니엄박스> 시리즈 중



에도 흥미롭다. 특히 촌스러운 표지장정·구태의연한 편집과 활자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잘 '빠진' 인문서에도 뒤지지 않는 세련된 편집, 게다가 내용을 이해를 돕는 그림과 관련 사진이 풍부해서 지루하지 않다.

교양과학시리즈를 주도한 것은 과학전문출판사들. 우선 의학·생물학·영양학 분야의 교재 및 사전을 출간해온 '아카데미서적' (대표 주성우)이 <와이박스>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 10억엔 이상의 매출고를 올린 <블루박스> 시리즈는 70년대부터 전과과학사에서 펴내왔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얼마전 출간을 포기했는데, 목욕이 아가워 바통을 이었다. 기초과학을 다지겠다는 생각으로 <눈으로 보는 힘과 운동>, <인간은 어디까지 진화하는가>, <H<sub>2</sub>O·수소 둘 산소 하나>, <새로운 과학론> 등 정통 목록으로 지금까지 40여종을 냈다.

물리·화학·수학 등을 정면에 내세운 책들이 관심사별로 갈라진 것도 특징이다. 반성하는 과학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가능하기도 하고, 유전공학·인공두뇌학·분자물리학의 지식을 흥미롭게 전하기도 한다. 과학기술 교재를 전문으로 하던 청문각의 자회사 한승(대표 김한승)은 최신 이론과 관심을 반영한 <한승유레카> 시리즈로 눈길을 끈다. 생명복제를 다룬 <리메이킹 에덴>, 원자를 쌓아올려 물체를 만드는 <나노테크놀로지>, 로봇의 인공두뇌학 <로봇의 행진>, 항공과학 <스컹크웍스>, 고온초전도체의 활용범위를 보여준 <신비로운 초전도체의 세계> 등이 그 목록.

수학전문출판사 경문사도 자회사 '10101' (대표 조경희)을 설립, <휴먼사이언스> 시리즈와 <아이콘> 시리즈를 펴낸다. 극단으로 치닫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제어해 줄 철학을 생각하게 하는 <휴먼사이언스> 시리즈로 <과학의 양심선>, <실수하는 과학> 등을 냈다. 수학전문출판사의 노하우를 살린 <아이콘> 시리즈는 <초기 수학의 에피소드>, <수학을 빛낸 여성들>로 수학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여기에 지성사나 사이언스북스, 서해문집처럼 시리즈에 관계없이 과학교양서만을 만드는 출판사가 생겨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 국내 저자 등장 반가워

아쉬운 점은 이 시리즈가 모두 번역서라는 점. 출판사들은 "까다로운 과학지식을 알기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저·역자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편집자는 "번역해 놓은 책은 반드시 전문가가 감수를 거쳐야 하고, 감수를 거치면 피하려 했던 전문용어가 다시 등장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국내 저자의 책이 등장하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나 출판계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아카데미서적이 펴낸 <밀레니엄박스>가 대표적. 과학전문지 <과학동아>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연재했던 기사를 정선해 수록한 이 시리즈는 21세기를 이끌 최신 과학기술 7가지를 수록한 <세븐 프런티어>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모두 7권이 나왔다. SF 영화의 실현여부를 타진하기도 하고, 자동차·스포츠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뜯어보며 폭넓은 과학지식과 최신 소식을 담았는데, 모두 국내 저자들이다.

청소년 학습교재를 만들었던 지학사의 단행본 자회사 벽호(대표 민숙자)에서 내는 <원리가 보인다> 시리즈도 저자가 거의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들이다. 물리·원자·빛·기술·세포 등을 주제로 하는 이 시리즈는 개념·원리 중심의 과학여행을 추구한다. '청소년을 위한 책'은 처음 과학교양서 붐을 이끌었고, 그 인기가 여전해 여러 출판사에

서 관심을 갖는다. 동녘·진선·사계절·해냄이 비슷한 주제로 청소년물을 냈고, 예문당은 <재미있는 ~ 이야기>, 한울림은 <사이언스 아카데미> 시리즈를 출간했다.

청소년에서 어린이로 독서 대상층이 넓어지는 것은 한 추세다. 교학사는 <까르르 과학동화> 시리즈를, 비룡소는 <학년별 과학 시리즈>, 한겨레신문사출판부에서도 <과학주머니> 시리즈를 펴낸다. 청소년 과학도



사이버 가수이다.

서로 재미를 봤던 김영사는 제목부터 재미난 <앗,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시리즈를 시작했다. 교육과 오락을 접목한 참신한 내용으로 이미 교육선진국 영국에서 청소년과학도서상을 수상한 '호러블 사이언스'의 번역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양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게 출판사의 말. 그래서지 만화를 응용하기도 하고, 동화·예화·문답·짤막상식을 다양하게 활용한 책이 많다. 또 그림책의 감동적인 내용과 과학을 접목한 <신기한 식물일기>(미래사), <달>(미세기) 등의 독특한 시도가 이뤄지고, 그 영역도 환경·기상으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단순 상식을 나열한 책들이 한편에서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 전문지식 갖춘 번역·편집자 있어야

아카데미서적의 주용운씨는 "과학에 흥미를 돌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재미를 붙이면 원리가 궁금해지게 마련"이라고 걱정을 일축했다. 다만 박성래 교수(외국어대 과학사)는 "출판계에는 과학을 가장한 미신이 만연하고 있다"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번역자와 과학대중화에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랐다.

—이현주 기자